

기안84 그림 중고마켓 등장... "판매가 1억5천만 원"

등록 2026.05.07 06:45:26



[서울=뉴시스] 기안84. (사진 = 유튜브 인생84 캡처) 2026.05.05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의 원화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역대 매물로 등장했다.

7일 연예계에 따르면, 최근 당근마켓에는 기안84의 2022년 첫 개인전 '풀소유' 출품작인 '별이 빛나는 청담'이 판매가 1억 5000만 원에 올라왔다.

판매자는 "이동으로 인해 처분한다"며 "유니크한 도상과 유화 터치감이 특징"이라고 설명했다.

해당 그림은 현대인의 부동산 욕망을 반 고흐의 화풍으로 재해석한 연작 중 하나다.

당시 기안84는 전시 수익금 8700만 원 전액을 기부했으나, 작품 한 점이 기부액을 훌쩍 상회하는 가격에 리셀 매물로 나오며 '재테크 논란'이 일기도 했다.

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